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0)(10/29/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2 장 거룩한 십자가라는 왕도, 3-4 절

요 12: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전 15:31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 1:20-21 -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3.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죽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길 외에는, 영생과 참된 내면의 평안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모든 곳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런저런 모든 길들을 탐색해 보십시오.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지고한 길이나 더 안전한 길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보십시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제나 어느 정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심령 속에서 영혼의 괴로움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4.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저리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치유책이나 위로도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벗어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안에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런 위로도 없는 가운데 환난을 감내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늘 준비되어 있고, 어디에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 당신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언제나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밖을 향하든 안을 향하든,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 싶다면, 어디에서나 인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말씀과 해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 삶이란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최악된 본성을 죽이고,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며, 못된 기질을 꺾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다. 갈 2:20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는 삶이 진정으로 사는 삶이며, 죽으면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 눅 9:24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 12: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고백했다. 고전 15:31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깨달은

바울은, 매일 같이 죽는 삶을 통하여 자기 안에서 새로운 믿음, 영성, 사랑, 선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확신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골 1:24 -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간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 빌 1:20-21 -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고난에 담담하게 대처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도 예외없이 고난을 겪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다. 아울러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다. 히 12:1-3- 1.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으며 견딜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견딜 수 있는 용기와 강단을 가지게 한다. 더 나아가, 고난을 극복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롬 8:32, 34-35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승리하며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크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진정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선교지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추방되었거나 자진 출국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부흥을 나날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